

##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선교적 의미에 대한 소고

A Study of Missional Implications of Abide Bear Fruit Consultation

---

저자 (Authors) 홍성빈  
Sung Bin Hong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2018.3, 9-39(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19330>

APA Style 홍성빈 (2018).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선교적 의미에 대한 소고.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9-39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선교적 의미에 대한 소고

홍성빈\*

- I. 서론
- II. 비전 5:9 네트워크의 역사적 배경
- III.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결과
- IV.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선교적 의미
- V. 한국 무슬림 선교의 도전/과업들
- VI. 결론

\*풀러신학교 졸업(D.Miss),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 K국에서 사역 중

## I. 서론

“Abide Bear Fruit” 컨설팅이전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태국에서 열렸던 전 세계 이슬람지역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의 국제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 컨설팅이전은 Vision 5:9 네트워크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필자는 2007년 파타야에서 열린 컨설팅이전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 다시금 역사적인 컨설팅이전에 참석하게 되어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였다. 더불어 이번 컨설팅이전에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대략 10여명 참석했는데, 함께 세계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밤이 늦도록 고민을 나누고, 무슬림 선교에 대한 한국 선교의 현 주소를 각자의 사역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던 시간은 참으로 의미 있었다고 사료된다. 본 원고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Abide Bear Fruit 컨설팅이전의 역사적인 배경과 컨설팅이전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컨설팅이전이 갖는 선교적 의미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도전들과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 II. 비전 5:9 네트워크의 역사적 배경

비전 5:9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만들어진 컨설팅이전 이름으로써, 오늘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서구와 비서구권 선교 단체들, 교회 개척 사역자들

1 <http://www.missionfrontiers.org/issue/article/what-must-be-done>(accessed 1 Feb. 2018).

1만 명 이상을 대표하는 다민족, 국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비전 5:9은 2025년까지 적극적인 복음증거와 효과적인 교회 개척을 통해서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서 재생산되는 교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다.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모였던 국제 컨퍼런스가 여러 차례 열렸다. 그 중에 비전 5:9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었던 컨퍼런스들을 선교역사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1906년 카이로(Cairo) 컨퍼런스

카이로 컨퍼런스는 1906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집트 카이로(Cairo)에서 열린 역사적인 모임이었다.<sup>2</sup> 개신교의 무슬림 선교를 위한 전략과 정보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에는 122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29개 선교단체들의 대표 62명과 60명의 초대받은 손님들이었다. 카이로 컨퍼런스에 대한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카이로 컨퍼런스는 21세기 초 이슬람 지역들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지역의 정황들에 대해서 최초로 출판함으로써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연구 과정속에서 몇몇 지

2 Samuel, M. Zwemer, *Methods of Mission work Among Moslems, The Mohammedan World of To-Day; Being Papers Read at the First Missionary Conference on Behalf of the Mohammedan World*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6).

역들은 배제되었기에, 어떤 면에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면도 있었다. 카이로 컨퍼런스의 가장 큰 가치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하고 주의 깊은 관찰을 시작했다는 점이다<sup>3</sup>.

## 2. 1911년 럭나우(Lucknow) 컨퍼런스

럭나우 컨퍼런스는 1911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럭나우(Lucknow)에서 열렸다. 럭나우 컨퍼런스는 카이로 컨퍼런스 보고서에 대한 보충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며, 카이로 컨퍼런스에서 조사된 것들과 진전된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또한 카이로 컨퍼런스 때 발표되었던 통계를 수정 보완했다. 럭나우 컨퍼런스에서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다. 첫째, 통계자료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정치적인 상황과 개발들에 대해서, 셋째는 카이로 컨퍼런스 이후 사회적 지적 운동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카이로 컨퍼런스의 결과물로서 본국 교회들의 이슬람 선교와 이슬람 세계에 대해 변화된 태도들에 대해서 나누었다.<sup>4</sup>

## 3. 1978 글렌 에리에(Glen Eyrie) 컨설테이션

글렌 에리에 컨퍼런스는 미국 콜로라도 글렌 에리에서 10월 중순에 일주일간 열린 컨퍼런스로서 무슬림 세계를 향한 북미 그리

---

3 C.G. Mylrea, Samuel Marinus Zwemer, and E. M. Wherry, eds, *Islam and Missions: Being Papers Read at the Second Missionary Conference on behalf of the Mohammedan world at Lucknow, January 23-28*(New York, Chicago: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11.

4 Ibid., 10.

스도인들의 책무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컨설팅이였다. 이 컨설팅이전은 1974년 로잔(Lausanne) 국제 세계 복음화 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대회였다. 로잔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온 세상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자”는 것으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특별히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킨 것은 거대한 미전도 무슬림들 지역에 대한 것이었다. 1974년 로잔 대회 이후 1977년 파사데나 컨설팅이전(Pasadena consultation)과 1978년 윌로우뱅크 컨설팅이전(Willowbank consultation)이 열리면서 북미 지역에 무슬림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하게 일어났다.<sup>5</sup>

글렌 에리에 컨설팅이전에는 무슬림 선교에 관심 있는 교단들, 선교사들, 훈련기관과 단체들에서 선교단체 지도자들, 현장 선교사들, 선교학 교수들, 이슬람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 신학자들과 미디어 전문가들 그리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에서 초청받은 참가자들까지 합해서 3,500명이 모였으며, 40편의 발제문들이 발표되었다. 특별히 이 대회기간 중에 제기된 주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왜 무슬림 세계는 더 복음화 되지 않는가? 왜 북미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단지 2%만이 무슬림 권에서 사역하는가? 왜 그들은 이슬람과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제한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컨설팅이전에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초대받은 현지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무슬림 복음화 과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었다. 이 대회동안, 비-북미인들의 무슬림 선교에 대한 관점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다.<sup>6</sup>

5 Lausanne Occasional Paper 4, *The Glen Eyrie Report: Muslim Evangelism*, <https://www.lausanne.org/content/lop/lop-4> (accessed 2 February 2018).

6 Ibid.

#### 4. 2007 파타야 컨설팅이션

파타야 컨설팅이션은 2007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렸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500여명이 모였으며, 당시 컨설팅이션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세계 동향들(Global Trends)과 열매 맺는 방안들(Fruitful Practices)이었다. 당시 모임은 두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모였다. 첫 번째 트랙은 이슬람 세계 동향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조사와 분석들을 나누었고, 두 번째 트랙에서는 무슬림 대상 교회 개척에 관한 열매 맺는 방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임이었다. 첫 번째 트랙이었던, 이슬람 세계 동향들(Global Trends)과 관련하여 무슬림 민족 집단들(MPGs: Muslim People Groups)에 대한 인구통계 분석 자료에 기초 자료로 사용된 것은 세 가지 였는데,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World Christian Encyclopedia), 미국 남 침례교 해외 선교부의 교회개척 진행 수치들(Church Planting Progress Indicators)과 여호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였다.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 각 지역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자료들을 업데이트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은 이슬람이 발흥 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수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sup>7</sup> 두 번째 트랙이었던, 열매 맺는 방안들(Fruitful Practices) 모임에서는 56개 단체, 37개 국가 출신 280명의 현장 사역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팀 사역을 하였으며, 738개의 모임을 개척했으며, 5,800명의 현장 사역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94개의 실천방안들에 대해

7 John Dudley, Woodberry,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2nd ed., rev. and enlarge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1), vii.

서 평가를 했다.<sup>8</sup> 이 컨설팅의 결과물은 우드베리 교수가 편집장으로 수고함으로 “씨앗에서 열매로(*From Seed To Fruit*)”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 III.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결과

Abide Bear Fruit 컨설팅은 2007년 파타야 컨설팅이전 이후 10년만에 열린 모임이었다. 전 세계 각국에서 849명이 모였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거하라... 열매 맺는다(Abide... Bear Frui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7년에 확인되었던 것처럼 이전 시대에 없었던 대규모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배경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 지금 무슬림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우리(특별히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들)는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sup>9</sup>

8 Ibid., viii.

9 <https://abidebearfruit.org/> (accessed 31 January 2018).



Abide Bear Fruit 컨설팅이션은 Vision 5:9 네트워크의 주도로 열린 컨설팅이션이다. 컨설팅이션이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운영 위원 측에서 모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여기서 잠시 메일 내용을 소개함으로 현장 분위기와 결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참석자들에 대한 거의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비서구권(Global South) 참가자들 50%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51%였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배경 신자들(MBBs) 25%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25%였습니다. 우리는 여성 참가자들 25%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28%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40세 이하 참가자들 25%를 보내주실 것을 신뢰하였는데, 31%였습니다. 우리는 1,200명의 참가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1,00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실제 참가자는 849명(비자의 어려움, 재정과 여행의 어려움때문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무슬림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간증을 나누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고, 흰 수염을 기른 어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어르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말씀하시길,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나 홀로 거대한 산에서 망치질 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수많은 다른 망치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sup>10</sup>

Abide Bear Fruit 컨설팅이션에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

10 <https://mailchi.mp/vision59/network-newsletter-abide-follow-up?e=daea520cb7> (accessed 6 November 2017).

들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Abide Bear Fruit 헌신 선언문이 작성되었다.

이 지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헌신 선언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Abide Bear Fruit 헌신 선언문

하나님이 영광과 효과적인 교회 개척을 통해서 모든 무슬림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은 헌신을 다짐합니다.

(1)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요15:5, 시편1:1-3, 요일4:16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로 기초가 되도록 헌신합니다.

(2) 성령으로 충만하라.

엡5:18, 행1:8, 2:4, 4:8, 4:31, 고전1:17-23, 2:1-5, 요1:1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에 헌신합니다.

(3) 말씀을 전하라.

딤후4:2, 막4:14, 사40:8, 행28:31, 딤후2:2, 마28:19-20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담대하게 전하며, 광범위하게 심고, 성경적 진리를 사랑으로 드러냄으로 모든 무슬림 민족들 중에서 제자들을 만드는 것에 헌신합니다.

(4) 기도하라.

엡6:18, 행13:3, 단9:3, 살후5:17 우리는 모든 무슬림 민족들 가운데서 교회개척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금식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www.kci.go.kr

(5) 날마다 죽으라.

갈2:20, 요12:24, 눅9:23, 고전15:31 우리는 모든 무슬림 민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헌신합니다.

2. 향후 10년간 전 세계 무슬림들 10%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 팀, 단체, 교회 차원에서의 금식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 세계 무슬림들 10%라고 한다면, 대략 1억 7천만<sup>11</sup> 명의 무슬림들이 향후 10년 내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이다. 이 결정은 컨설팅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형제에게 주신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참석한 참석자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다시한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개인적으로 국제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더불어 비전 5:9 파트너십이 숫자와 통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보고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 2025년까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계 1,037개의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 속에 교회개척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자고 목표를 설정했다.

4.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활약하던 여덟 명<sup>12</sup>의 베테랑 사역

11 <https://www.mnnonline.org/news/mission-organizations-aim-reach-entire-muslim-world-gospel-2025/> (accessed 2 February 2018).

12 이들 여덟 명은 돈 메커리(Don McCurry), 더들리 우드베리(Dudley Woodbery), 스투어

자들이 참여하고, 컨설팅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사역지로 재 파송 한 것이다. 마지막 날 저녁에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비전 5:9 운영 위원들과 여덟 명의 노장 선교사들이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가자들이 서명한 헌신 선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파송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5.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복음 증거에 대한 강한 열정과 헌신을 드러냈다. 향후 이슬람 지역에 무슬림들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 나라에서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들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큰 힘과 격려를 받았고, 자신을 다시금 무슬림 선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IV.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선교적 의미

첫째, Abide Bear Fruit 컨설팅은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컨설팅의 역사적 모체는 1906년 카이로 대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컨설팅은 카이로 대회 당시

---

트 로빈슨(Stuart Robinson), 사피야 미르자(Safia Mirza), 파리다 사이디(Farida Saidi), 빅터 하쉬웨(Victor Hashweh), 데이빗 쉐크(David Shenk), 그레그 리빙스톤(Greg Livingstone)이다.

이슬람권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 연구, 분석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세계 교회에 이슬람 지역에 대한 사역적 필요를 환기시켜 온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세기 동안 신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들을 통해서 축적된 선교적인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의 열매를 우리 시대에 거두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선교 역사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 되어 이 시대에 무슬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배여 있던 모임이었다.

둘째, 운동중심(Movement orient)의 선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었다. 운동중심의 선교라는 것은 선교가 인간의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가 그의 책에서 미시오 데이(Missio Dei)에 대한 의미를 정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시는 원천이시기에,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무슬림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운동중심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슬람권 선교를 포함한 세계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반성 속에서 개척된 매우 고무적이며 역사적인 컨설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선교는 어떤 단체, 교회나 개인의 고안물이 아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개인, 교회와 단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이 강한

13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90.

지역들 속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데이빗 게리슨은 2014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이슬람의 집에서 부는 바람”(Wind in the House of Islam)에서 자신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슬람권에서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나누었다.<sup>14</sup>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된 후 12년간 적어도 1,000명이상의 세례를 받은 무슬림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와 100개의 예배 모임이 생겨나게 한 69개의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런 운동들은 세계의 일부지역에서 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집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페르시아어권에서, 아랍 세계에서, 투르크권에서, 남아시아에서, 남동 아시아에서 이전에 본적이 없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sup>15</sup>

이번 컨설팅 중에 필자는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교회 개척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의 저자인 게리슨의 선택강의에 참석했다. 게리슨은 자신의 인터뷰 자료들과 수집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정보들을 보여주면서, 전 이슬람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개척 운동 상황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시대에 없었던 이슬람권 무슬림들의 추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속에서 역사적인 운동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했다.

14 David, Garrison, *Wind in the House of Islam* (Monument, CO: Wigtake Resource, 2014).

15 Ibid.

셋째, 무슬림 미접촉 민족들(Muslim Unengaged People Groups)<sup>16</sup>에 대한 남은 과업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발표되었고, 업데이트가 되었다. 어떤 무슬림 민족들에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민족들에게 사역자들이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컨설팅을 통해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전 5:9 네트워크의 협력사역과 집중적인 사역으로 2008년 이후 300개의 무슬림 미 접촉 민족들이 접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2,084개의 무슬림 미 접촉 민족들 가운데 48%는 여전히 미 접촉 상태이다. 비전 5:9 네트워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개척 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163개의 무슬림 미 접촉 민족은 전체 무슬림 미 접촉인구의 80%에 해당된다. 이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미 선교계에는 국제 네트워크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큰 비전을 가진 교회들,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이 서로 연합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이끌어 준다.<sup>17</sup> 2017년 Abide Bear Fruit 컨설팅은 바로 국제 네트워크의 열매이다. 비전 5:9 컨설

16 미 접촉 민족(Unengaged People Group)이란 지속적인 교회 개척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미전도 종족을 말한다. 접촉되었다(Engaged)란 미전도 종족이 접촉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미전도 종족들 속에 다음의 네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를 말한다. 적어도 한 개의 교회 개척팀이 그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 민족의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헌신하며, 장기사역에 헌신하며, 그 민족들 가운데 자발적인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를 말한다.

17 Michael Pocock, Gailyn Van Rhee, and Douglas McConnell, Douglas,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261.

테이션 태동된 이래로 네트워크에 가입된 단체들이 18개에서 2017년 3월 175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단체들은 12,000명의 교회 개척자들, 17개 교단들, 32개의 네트워크 그리고 40여 개국을 대표하고 있다. 비전 5:9 네트워크의 국제 코디네이터이며 국제 AIM선교회의 디렉터인 존 베커(John Becker)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슬림 세계에 돌파를 일으키는데, 어떤 한 교회, 단체 혹은 교단이 감당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sup>18</sup>

마지막으로, 비서구권(Global South)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부상한 컨설팅이션이었다. 기독교가 서구권(Global North)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계에 드러난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서방국가들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 거주하고 있다.<sup>19</sup> 이에 따라 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운동 중에 하나는 비서구권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다. 2007년 컨설팅이션과 2017년 컨설팅이션의 가장 큰 변화는 비서구권 출신 선교 지도자들과 서구권 출신 선교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컨설팅이션의 주도적인 리더들은 서양 선교 지도자들이었다. 하지만, 2017년 컨설팅이션에서 확인된 것은 비서구권(Global South) 선교 지도자들과 무슬림 배경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들이 행사를 여러 모양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초

18 John Becker, “What Must Be Done?,” *Mission Frontiers* (2017 Mar/Apr): 23-26; [http://www.missionfrontiers.org/pdfs/39-2\\_23-26\\_Becker\\_WhatMustBeDone.pdf](http://www.missionfrontiers.org/pdfs/39-2_23-26_Becker_WhatMustBeDone.pdf) (accessed 5 February 2018).

19 Michael Pocock, Van Rheenen Gailyn, and Douglas McConnell,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132.



대되었고, 실제로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제적 컨설팅을 주도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에 서툰 면이 있지만, 서양 리더십들이 적절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 서방 중심적인 선교가 비 서방 국가 출신 선교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이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이슬람권 무슬림 대상 선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더 잘 세워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V. 한국 무슬림 선교의 도전/과업들

지금까지 Abide Bear Fruit Consultation이 갖는 역사적 배경과 선교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교적 도전과 과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도전과 과업들에 대해서 현장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로, Vison 5:9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시작된 한국 내 이슬람 파트너십의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전 방위적인 책임과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07년 Vison 5:9 파타야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몇몇 한국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의 전문성과 전략을 개발하고,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의 협력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던 중, 2010년 8월 한국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 수고했던, 이슬람 포럼과 IRT(Islam Round Table)를 통합하자는 제안에 3개 단체의 47명이 모여서 ‘이슬람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되었다.<sup>20</sup> 한국의 이슬람파트너십 형성에 비전

20 [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 (accessed 5 February 2018).

5:9 네트워크의 공헌이 있었다고 비전 5:9 국제 코디네이터인 존 베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선교사들의 끔찍한 순교 이후, 무슬림 세계를 향한 한국선교 운동은 억눌림을 당하고 주춤하게 되었다. 비전 5:9은 무슬림 세계를 향한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 운동을 위해 대화와 효과적인 방안들 그리고 격려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한국의 이슬람파트너십 설립에 씨앗 역할을 감당했다.<sup>21</sup>

이슬람파트너십은 2010년 결성된 이후, 한국 교회의 전략적이고 건강한 이슬람 선교를 위해 활발하게 컨선테이션을 개최했다. 제1차 컨선테이션은 2011년 11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제2차 컨선테이션은 2012년 11월 필그림 하우스에서, 제3차 컨선테이션은 2013년 11월 말레이시아 KL열린교회에서, 제4차 컨선테이션은 2014년 8월 남서울 은혜교회 밀알 학교에서 개최했다.<sup>22</sup>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 4차 컨선테이션 이후 지금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월 발행되는 IP Letter(매월 1일에 발행하는 이슬람파트너십의 소식지)도 2016년 12월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ide Bear Fruit 컨선테이션에 참석한 10여명의 한국 출신 참가자들 중 반 이상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들이었다. 물론 이슬람 파트너십의 실행 위원들 두 분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세분이 참석하였다. 아쉬운 부분은 한국 이슬람파트너십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에 도움을 주고자 결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슬람파트

21 John Becker, "What Must Be Done?," 23-26.

22 [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 (accessed 5 February 2018).

너십에 참여하는 선교단체들 대표들이 역사적인 국제 이슬람 선교 컨설팅에 참석하여 현재 이슬람 선교의 동향과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또한 그것이 비전 5:9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결성된 이슬람 파트너십의 책무가 아닌지 아쉬움 마음을 피력해 본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접근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와 2007년 아프간에서 발생한 한국 단기선교사들 피납 사건의 충격이 가져다 준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슬람에 대한 일반적이고 단순화된 혹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면이 있다. 이슬람에 대한 혐오 내지는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을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라는 용어로 부른다. Islamophobia를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혹은 편견”으로 정의 내리면서, 단어의 기원을 1920년대라고 한다.<sup>23</sup> 최근 한국교회의 이슬람에 대한 혐오 내지 두려움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권지윤 박사는 “과거지향적인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다.<sup>24</sup> 프론티어스 한국대표 이현수 선교사는 “이슬람포비아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17억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넉넉한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sup>25</sup>고 했다.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모 교수도 한국이슬람연구소 저널

23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islamophobia>. (accessed 5 February 2018).

24 권지윤. “한국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1 (2014,06):9-57.

25 <https://frontiers.or.kr/이슬람-포비아와-한국-교회/>. (accessed 5 February 2018).

*Muslim-Christian Encounter*에서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증가는 무슬림들을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연약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sup>26</sup> 한국교회가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접근과 선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세계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기여할 만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세계교회에 선교사 파송 숫자의 증가를 자랑하면서 보냈다. 이제는 세계 선교계에 양적 성장에 대한 자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Abide Bear Fruit 컨설팅은 선교의 본질과 기초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대회였다.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현장의 선교사들은 선교 방법론 내지는 선교 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선교 방법론과 유용한 전략을 가지고 무슬림 선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 거하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채로, 방법과 전략에 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Abide Bear Fruit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선교의 열매는 선교사가 주님께 거하는 것에서부터 맺혀진다는 것을 확인케 해 주는 컨설팅이였다. 참석자들 모두가 주님께 거하는 것을 삶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노라는 헌신을 하였다.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교회 보다도 기도를 많이

26 이현모,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이슬람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4 no.4 (2011,11):95-122.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위해 집중적인 기도의 참여함으로 전 세계 무슬림 선교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 선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무슬림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겸손한 섬김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기도 속에서 부흥한 교회이다. 선교지에 파송 받아 사역하는 많은 한국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전통 속에서 자란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다. 하지만,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 하면서 사역 프로젝트와 일에 쫓겨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역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한국교회가 파송 선교사들에게 교회건물을 몇 개를 세웠고, 세례를 몇 명 주었느냐 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한 질문 보다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냐는 영적 열매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본다.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동역과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비전 5:9 네트워크의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계 무슬림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며, 비전 5:9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한국에서 무슬림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단체 리더들과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현장 선교사들이 함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역사학자인 앤드류 월스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대회를 분석한 그의 아티클에서 20세기는 인류 역사의 특별한 시기라고 간주하면서, 더 이상 유럽과 북미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다.<sup>27</sup> 월스 박사는 덧붙이기를 “그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여백으로 밀려나가고, 여백에 있던 나라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기독교 선교는 어떤 한 곳에서 시작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면서, From anywhere to anywhere로 설명하였다.”<sup>28</sup> 이제 세계선교는 어느 한 국가와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할 때인 것이다. 비전 5:9 네트워크는 무슬림 선교의 중심을 서구 중심적인 선교에서 비서구 중심적인 선교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비서구가 협력과 동역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전 5:9 네트워크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은 이슬람 선교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여긴다.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하이라이트는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한 것이다. 전체 참석자들의 25%가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향후 10년 후에 비전 5:9 컨설팅이 열린다면 100%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떨까 상상해 보게 된다.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

27 Walls, Andrew Finlay, ed., “Afterword: Christian Mission in a Five-hundred-year Context,” Edited by Andrew Finlay Walls and Cathy Ross, *Miss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Exploring the Five Marks of Global Mission*(Maryknoll, NY: Orbis Books, 2008),193.

28 Ibid., 202

음을 전하는 데 전략적인 자원들이었다. 정승현은 “로잔 운동을 통한 이슬람 선교 연구”에서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MBB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슬람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무슬림이었고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는 여전히 이슬람에 익숙해져 있다”<sup>29</sup>고 하면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비전 5:9 네트워크는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무슬림 선교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들을 네트워크 속으로 초대 한 것이며, 함께 협력과 동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비전 5:9 네트워크와 같이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세우고 더불어 비서구권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교회는 한국에서 일하는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깊은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벌써 오래 전부터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2008년에 한국 지방정부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다민족, 다문화 현상은 19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한국의 노동 시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은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족한 인력 시장을 보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다문화 이주자의 한국사회로의 이입은 2000년대 초반

29 정승현, “로잔운동을 통한 이슬람 선교 연구,” 『장신논단』 제48집 4권(2016.12): 281-309.

이후 두드러지고, 그 수는 2008년 말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다.<sup>30</sup>

2015년에 국내 외국인의 수가 약 180만 명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sup>31</sup>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무슬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를 연구 발표한 안정국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이주 무슬림들의 주요 출신지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인데, 2015년 2월 총 135,585명의 외국국적 체류 이주 무슬림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sup>32</sup> 이들 무슬림들은 한국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었다. 나그네들은 의료적, 법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최근 한국 교회들 중에 이주 노동자 사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퍼져 있는 이슬람포비아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경험한 어느 한 교회는 동남아 불교권 혹은 힌두권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감당하는 한 사역자가 필자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던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한다. “얼마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자 두 명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토요 한글학교 외국인

30 지중화, 정명주, 김도경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제13집 2권(2009):110.

31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집 3권(2015):157.

32 Ibid., 158.



모임에 왔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찾아온 우즈베크인 두 사람이 무슬림들이어서 거부감부터 들었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그들도 느꼈는지, 그 날 이후로 더 이상 우즈베크 노동자들은 오지 않았어요.”<sup>33</sup>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떠할까? 한국 교회는 단순히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무슬림이기에 이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에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무슬림들에 대한 이런 근거 출처 불분명의 거부감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고, 나그네로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들어주고 맞아주는 노력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결론

지금까지 Abide Bear Fruit 컨선테이션의 역사적인 배경과 2017년 컨선테이션 현장과 결과물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와 우리 앞에 놓인 무슬림 선교의 도전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특별히 필자는 컨선테이션의 선교적 의미 다섯 가지와 한국교회의 무슬림 선교와 관련하여 우리 앞에 놓은 도전과 남은 과업으로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선교적 의미 다섯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대회였다. 둘째, 운동중심(Movement orient)의 선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었다. 셋째, 무슬림 미 접촉 민족들(Muslim Unengaged People Groups)에 대한 남

33 사역자 Y, 2017년 11월 10일 나눈 대화.

은 과업이 발표되었고,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다. 넷째,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비서구권(Global South) 책임과 역할이 부각되었다.

한국 교회의 무슬림 선교에 대한 도전과 남은 과업들은 첫째, 한국 내 이슬람파트너십의 전방위적인 책임과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교회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접근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셋째, 무슬림 선교에 한국 교회가 기여할 만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동역과 협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깊은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도시 계획가인 패트릭 기드스(Patrick Geddes)가 처음 사용했던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말이 있다.<sup>34</sup> Abide Bear Fruit 컨설팅에 참여한 이후 무슬림 선교를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필자의 뇌에 떠오르는 문장이다. 무슬림 선교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가장 큰 역사적인 모임이었기에, 무슬림 선교의 흐름과 동향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서 폭넓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는 측면에서 필자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컨설팅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제 필자에게는 지역적으로 행동해야(Act locally)할 숙제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사역하고 있는 현

34 Daniel Tarantola, *Thinking Locally Acting Globally? AM J Public Health* 2013 November, 103(11): 1926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828730/>. (accessed 4 February 2018).

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사역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Abide Bear Fruit 컨설팅의 중심 주제처럼,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 모든 사역과 삶의 초석이요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한다. 무슬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숫자와 통계 자료 분석에 매여서 드러나는 결과에 이끌려 가는 무슬림 선교 현장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방향에 우리의 모든 방법과 전략을 맞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10년간 전 세계 교회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10년이 되는 2027년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된다. Abide Bear Fruit 컨설팅은 전 세계 교회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장 5절).

## ■ 참고문헌

- 권지윤. “한국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no.1 (2014.06): 9-57.
-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집 3권(2015): 155-180.
- 이현모.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이슬람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4 no.1(2011): 95-122.
- 정승현. “로잔운동을 통한 이슬람 선교 연구.” 『장신논단』 제48집 4권(2016): 281-309.
- 지종화, 정명주, 김도경.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 모형. 지방정부연구. 제13집 2권(2009):109-136.
- Becker, John, “What Must Be Done?: The Birth of a Vison and its Network.” *Mission Frontier* (2017,Mar/Apr).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Daniel Tarantola. *Thinking Locally Acting Globally? AM J Public Health*, 2013 November, 103(11): 1926,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828730/>. (accessed 4 February 2018).
- Garrison, David. *Church Planting Movements: How God is Redeeming a Lost World*. Monument, CO: WIGTake Resources, 2007.
- \_\_\_\_\_. *Wind in the House of Islam*. Resource, Monument, CO: WIGTake, 2014.

- Mylrea, C. G., Samuel Marinus Zwemer, and E. M. Wherry, eds., *Islam and Missions; Being Papers Read at The Second Missionary Conference on Behalf of the Mohammedan World at Lucknow, January 23–28*, New York, Chicago: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 Pocock, Michael, Gailyn Van Rheen, and Douglas McConnell,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 Walls, Andrew Finlay, ed., “Afterword: Christian Mission in a Five-hundred-year Context.” Edited by Andrew Finlay Walls and Cathy Ross, *Miss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Exploring the Five Marks of Global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 Woodberry, John Dudley.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2nd ed., rev. and enlarge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1.
- Zwemer, Samuel Marinus, Wherry, Elwood Morris, Barton, James L., *Methods of Mission work among Moslems, The Mohammedan World of To-Day; Being Papers Read at the First Missionary Conference on Behalf of the Mohammedan World*.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6.
-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islamophobia>, (accessed 5 February 2018).

<https://abidebearfruit.org/> (accessed 31 January 2018).

<https://frontiers.or.kr/이슬람-포비아와-한국-교회/>(accessed 5 February 2018).

[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http://www.ipkorea.org/korean/intro_01.html), (accessed 5 February 2018).

<https://www.lausanne.org/content/lop/lop-4>, (accessed 2 February 2018).

<https://mailchi.mp/vision59/network-newsletter-abide-follow-up?e=daea520cb7>, (accessed 6 November 2017).

[http://www.missionfrontiers.org/pdfs/39-2\\_23-26\\_Becker\\_WhatMustBeDone.pdf](http://www.missionfrontiers.org/pdfs/39-2_23-26_Becker_WhatMustBeDone.pdf), (accessed 5 February 2018).

<https://www.mnnonline.org/news/mission-organizations-aim-reach-entire-muslim-world-gospel-2025/>, (accessed 2 February 2018).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islamophobia>, (accessed 5 February 2018).

사역자 Y, 2017년 11월 10일 나누는 대화

■ ABSTRACT

## A Study of Missional Implications of Abide Bear Fruit Consultation

Sung Bin Hong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reflect on the “Abide Bear Fruit Consultation”(hereafter called ABFC) held in Chiang Mai, Thailand in 2017, in order to make abiding in Jesus the first priority and basic methodology of mission. In some way, it seems numerous global gatherings and networks tend to focus on tools and methods for reaching Muslims. ABFC doesn't undermine these tools and methods, but emphasizes an ultimate and fundamental issue in relation to world mission to Muslims. As a Korean participant and a practitioner who is serving and working among Muslims in Central Asia and attended the ABFC, I present personal reflection and perspectives on missional implications of the consultation. I will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of Vision 5:9 network which facilitated ABFC. Furthermore, I will attempt to convey the context and outcome of the 2017 ABFC in the conclusion and articulate

www.kci.go.kr

the missional implications and challenges/remaining tasks of the Korean church,

**Keywords:** Vision 5:9 Network, Abide Bear Fruit Consultation, Muslim Unengaged People Group, World Missions to Muslims